

■ 법률 칼럼

H-1B 추첨을 위한 전자 등록이 3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고용주께서 먼저 온라인으로 추첨을 위해 먼저 등록을 하시고 추첨에 뽑힌 후에 고용인을 위해서 H-1B Petition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어카운트는 2월21일부터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위한 등록은 3월1일(동부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18일이고 3월31일까지 등록 결과를 고용주의 이메일로 통부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위한 온라인 등록은 고용주께서 간단한 회사 정보와 취업비자 신청인(고용인)의 다음 정보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필요한 정보 목록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정보

- Legal Name of the company (회사법인명)
- Doing Business As (DBA가 있으면)
-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회사고용주번호)



▲ 사진=shutterstock

- Primary US Address office of the company (회사주소)

2. 신청인 정보

- Legal Name of the H1B applicant (신청인 이름: 여권에 나온 대로)
- Date of Birth (생년월일)
- Country of Birth (출생국)
-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 Passport Number (여권번호)

위에서 이미 안내해드린대로 3월 18일까지 전자등록을 받고 일주일 안에 추첨으로 추첨에 뽑히신 분들께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H-1B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잘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리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대입 지원 시 카운슬러로부터 좋은 추천서 받으려면

대입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는 바로 학교 카운슬러이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카운슬러는 수많은 대학들 가운데 학업적으로나 나의 성향 면에서 어떤 대학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의 필수 요강과 재정보조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 또한 입시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카운슬러로부터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



▲ 사진=shutterstock

교사의 추천서가 학생의 능력과 강점, 학생이 성취한 것에 대한 통찰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면, 카운슬러의 추천서는 학생이 고교에서 수강한 전체 수업들의 맥락 안에서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와 카운슬러의 추천서는 입시 과정에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운슬러의 추천서가 교사의 추천서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이 자기 원하는 카운슬러를 선택해서 추천서를 부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사는 내가 어느 교사에게 부탁할지 고민한 뒤 결정해서 부탁할 수 있지만, 카운슬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나에게 배정된 담당 카운슬러가 추천서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규모가 큰 고등학교에서는 카운슬러 1명이 워낙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카운슬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미래 수업 스케줄을 짜기 위해 만나는 공식적인 미팅 외에도 카운슬러와 개

인적으로 종종 미팅을 잡는 것이 좋다. 나의 목표와 야망, 학업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의 다른 면모들에 대해 카운슬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독한 관계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카운슬러가 나의 강점에 대해 추천서에서 잘 보여줄 것을 원한다면, 카운슬러가 나에게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카운슬러가 나에게 대해 잘 안다면, 추천서에서 그런 독특하고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잘 드러나게 되므로 동급생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카운슬러와 소통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카운슬러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카운슬러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지나친 요구나 재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카운슬러와 미팅에서는 정성껏 작성한 레주메(브렉시트)와 지금까지 수강했거나 현재 듣고 있는 과목 리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카운슬러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나의 강점과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